



김수평
가톨릭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대한주산의학회 회장

엄마젓 먹이기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엄마젓을 먹이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엄마젓 먹이기는 다음 세대의 건강을 위한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일이다. 엄마젓 먹이기의 기본적인 원칙은 갓 태어난 아기에게 30분 이내에 젓을 물리는 것이다.

태어난 지 30분 안에 엄마젓 먹이기

임신과 분만이란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으로, 분만 후 태어난 아기의 양육을 위한 모유수유 또한, 그 아기를 분만한 어머니의 몫으로, 임신과 분만 중, 그리고 분만 후에 자연스럽게 모유수유를 위한 준비와 변화가 그 어머니의 몸에 일어나고, 갓 태어난 아기도 자연스럽게 엄마의 젓을 찾게 된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의 공급원이 어머니 밖에 될 수 없었던 시절에는, 임신과 분만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라, 어머니와 아기는 본능에 가깝게 분만 후 부풀어 오른 젓을 빨리고, 빨면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구조와 산업의 발달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여러 가지 인공적인 가공식품들이 수입되고,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피치못할 몇 가지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고자 개발된 대체 영양인 인공

우유와 그 가공품들이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무차별 공급되게 되었다.

또한, 1980년,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에 들어선 이후, 병원분만의 증가로 인하여, 갓 태어난 대다수의 정상적 아기들조차도 분만 후, 2~3일간 어머니와 격리 수용되어 집단 관리되면서, 분만 직후 인공수유에 노출되어, 성공적 모유수유의 첫 단계인 “태어난 최초의 30분 이내에 엄마 젓을 물릴” 기회를 박탈해 온 것이 아닌가 하여, 임상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반성의 마음을 갖게 된다.

혼합영양, 엄마젓 먹이기 어렵게 한다.

모유수유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1977년에는 모유수유 42.8%, 인공수유 26%, 그리고 혼합영양 34.1%이던 것이, 1993년에는 모유수유 16.9%, 인공수유 35.3%, 혼합영양 47.9%, 2000년에는 모유수유 10.3%, 인공수

유 43%, 혼합영양 46.7%로 모유수유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인공수유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인과 병의원들이 분만 전·후 엄마젖 먹이기에 대한 기본방침과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의료인들조차도 엄마젖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병원 시설이 분만 후 엄마젖을 먹이기에는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엄마젖 먹이기의 첫 단계에서 이미 아기 어머니들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현재 병원 환경은 1명만 입원해도 주위의 친지들이 많이 와서 면회를 하는데, 산모가 아기를 낳고 조용히 쉬면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면회를 제한하고, 모자동실을 통해 엄마젖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기들에게 엄마젖을 먹이게 될 임신부들을 일선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다.

모유수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산부인과 의사는 산전 진찰 중, 분만중, 그리고 분만 후에 모유수유를 도울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엄마젖 먹이기,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일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수유율이 감소했다가, 현재 다시 차츰 증가하고 있는데 모유수유에 대한 장점은 많이 알려져, 엄마들은 이를 실천하려해도, 여전히 사회적 여건이 어려워 먹이지 못하거나, 실질적 교육 정보의 부족으로 엄마젖 먹이기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

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자 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과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신생아 전문가들에 의한 모유수유 증진 프로그램에 따른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유수유 중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질문과 그 해결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많은 엄마들이 모유수유에 성공하여, 우리의 2세들의 정서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모성상(母性像)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일, 그것이 바로 엄마젖 먹이기”임을 깨닫도록 언론과 방송, 영상매체를 통한 꾸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